

# 경제계 '추석 나눔경영' 펼친다

## 광양제철·금호고속·백화점 등 상생·봉사활동 활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최근 경제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통 시장상권활성을 구상하고 협력업체 사기진작에 나서는 등 기업들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일반 자재 및 원료 공급사에 매주 화·금요일 두차례 지

급하던 자금을 14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지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던 공사 참여기업에도 대금을 조기 정산할 예정이다. 또 월 단위로 정산하는 외주파트너사의 협력 작업비를 추석 연휴전인 17일에 일괄 지급해 거래기업들의 유동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권활성을 위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도 있다.

광양제철소(2억2000만원)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1억7300만원), 한국남동발전여수화력발전처(2000만원), 한국광기솔루션(880만원), 광주상공회의소(800만원) 등

이윤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각종 복지시설을 찾아 소외계층이 추석을 쓸쓸히 보내지 않도록 쌀과 생필품 등 물품을 전달하는 곳도 많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시와 함께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펼친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각 구청별로 저소득층 1~2가구를 추천받아 부엌·화장실 등 보수공사와 지붕 개량·보일러 교체·도배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은 오는 17일 광주시 서구 쌍촌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만들기, 점심식사 배식 등 봉

사활동을 펼치고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동구 노인복지관에는 툴케이크 200개를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양동주민센터에서 혼자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 이발·의료봉사 등을 하는 '희망동네 만들기' 활동을 펼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5일 10시부터 동구 계림동 일대의 저소득층 가정에 쌀과 생활용품을 증정하는 '추석 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광주본부도 나눔 경영 일환으로 지난 10일 인재육성장학기금 3000만원과 쌀 200포대를 광산구청에 전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엄마 어렸을적엔 말이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12일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1층 광장에 70년대 후의 분위기를 살려 놓은 '추억의 백화점' 전시를 열었다. 추억의 놀이인 딱지치기 등을 재현했고 '달고나'와 '코카콜라 맛 젤리' 등 어릴 적 즐겼던 간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는 16일까지 열린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 카드 수수료 가장 낮은 곳은 '주유소'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공통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낮은 업종은 '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낮은 업종은 주유소(1.5%)이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흥업(4.5%)의 3분의 1 수준이고 대중교통(2.0~2.7% : 이하 중간값 기준)이나 백화점(2.0~2.5%), 할인점(1.8~2.5%), 학원(2.6~3.5%), 국산신차(1.8~2.7%)보다도 낮은 편이다. 심지어 지난 4월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한 재래시장(1.6~1.8%), 중소가맹점(2.0~2.15%)보다도 수수료가 낮다.

이처럼 주유소의 가맹점 수수료가 다른 업종보다 낮은 것은 압도적인 카드결제 비중 때문이다.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은 100% 가깝게 카드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카드는 다른 업종보다 수입이 많고 주유소는 매달 수조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주유소가 다른 업종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주유소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때가 많다. /연합뉴스

## 기아차 광주공장 등 3곳에 사회공헌센터

기아자동차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박차를 가한다. 12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장 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기아차는 이 센터를 지역 사회공헌의 핵심 축으로 삼고, 주요 사업장의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간다.

광주공장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산타 원정대'와 '어린이 도서관'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제수용품 등 4대품목**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 더블찬스정기예금 판매 光銀 오늘부터 17일간

광주은행은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코스피 200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52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0% (원금보장), 최고 연 17.4%를 보장한다. 단, 기준지수 결정일 다음날부터 만기지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하면 연 4.0%로 수익이 확정되는 녹아웃(Knock-out)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진로 참이슬 공법 '대나무 활성숯' 숙취 제거 탁월

참이슬 정제공법에 사용되는 '대나무 활성숯'이 숙취 원인 물질 제거와 잠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진로에 따르면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박승국·김대욱 교수는 한국산업식품공학회지 8월호에 게재한 논문 '알코올모델용액을 이용한 여러 종류 활성탄의 휘발성화합물 흡착특성'을 통해, 휘발성화합물 제거에 대나무 활성탄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숙취 및 이취(異臭·잡냄새)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휘발성 화합물 6가지를 알코올 용액에 용해한 후 10가지 활성탄을 첨가해 각 활성탄별 제거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 대나무 활성탄이 비교적 세공부피가 잘 발달했고 넓은 표면적(1329㎡/g)을 갖고 있어 다른 10개 활성탄보다 흡착효율이 높아 휘발성화합물 제거 효과가 우수했다.

휘발성화합물은 효모에 의해 생성되거나 알코올음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숙취와 이취의 원인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주간 증시 포커스 달러 약세 수혜주에 관심가져야

코스피 지수가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800선에 올라섰다. 미국 경기의 이중침체 논란이 여전하고 유럽은행에 대한 약제가 부담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를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제부터는 1,8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형국을 청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코스피 지수 흐름이 이전 박스권 흐름과는 달리 꾸준히 저점을 높여 왔다는 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S&P500지수와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해외 변수가 장세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높다.

다만, 지수가 반등할수록 펀드 환매도 증가하면서 지수 반등을 제약할 수도 있어 전반적인 추세

를 바꾸지는 못할 전망이다. 개별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미국 경기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지수 흐름과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실제보다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약제가 조금만 불거져도 미국채 즉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과도하게 진행 되었다. 하지만 2008년 리먼사태 때와 비교하여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신흥국 성장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것도 주목해야한다. 현재 미국채 수익률에 대한 극도의 선호 현상은 그만큼 갈 곳 잃은 글로벌 잉여 유동성이 한꺼번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벌어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오바마가 11월 2일 중간



光州日報 문화여행

세계 최초로 땅속에 지어진 나오시마 지추(地中) 미술관 내부 모습

## 예술의 낙원, 日 나오시마섬으로 떠나요!

**10월 1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40명 모집**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일보사가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낙원으로 거듭난 일본 나오시마 지추(地中) 미술관 일대로 문화여행을 떠납니다.

나오시마 섬(直島)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땅속에 미술관과 호텔을 설계한 독특한 컨셉으로 유명해진 곳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클로드 모네, 앤디워홀 등 거장들의 명작이 한데 어우러진 미술관 벨트는 작고 외진섬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기적의 현장입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떠난 빈집을 예술가들의 창작촌으로 작화와 해설 전제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하우스 프로젝트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3박4일간의 여행에는 최근 나오시마 지추미술관에 개관한 이유환 미술관을 비롯해 피카소, 르노와르, 세잔 등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오하라 미술관과 다카마스 시립미술관, 쿠라시키 미관지구 등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거장들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문화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여행일정**

<b>10월22일(금)</b>	<b>10월23일(토)</b>	<b>10월24일(일)</b>	<b>10월25일(월)</b>
광주에서 인천공항 이동 다카마스 출발 다카마스 도착 후 시내 이동 다카마스 시립미술관 관람	다카마스항으로 이동 웨리로 나오시마 이동 나오시마 지추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이해 프로젝트 투어 오카야마로 이동	쿠라시키 미관지구 오하라 미술관 고라쿠엔 정원 오카야마성 히로시마로 이동	히로시마 공항으로 이동 인천공항 도착 광주로 이동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오시마**

**주 최** 광주일보사  
**주 관** 하나투어 유니버스항공  
**모집인원** 40명(선착순)  
**신청마감** 10월15일까지  
**접수·문의** (062)522-2255  
**여행경비** 145만원